

보 도 해 명 자 료 (‘13.11.14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「‘아동용 책가방 유해물질 검출’(‘13.11.13, 경향신문, 이데일리, 동아일보, 중앙일보, 한국일보) 등」 보도에 대한 입장

1. 기사내용

- ☐ ‘헬로키티와 폴프랑크키즈 책가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이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서도 유해물질이 검출돼 리콜명령을 받았지만 이번 조사에서도 적발됐다’ 등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- ☐ 기술표준원은 2012년 9월 헬로키티 및 폴프랑크 기업 제품인 아동용 책가방에 대하여 리콜 조치한 바 있으나
 - 금번 녹색소비자연대에서 조사하여 발표한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과는 다른 제품임
 - 현행법상 리콜조치 대상제품은 모델명이 동일한 경우에만 적용

* 기술표준원 리콜조치 제품과 금번 녹색소비자연대 발표 제품의 모델 비교

구분	기술표준원의 리콜조치 제품(‘12.9)	녹색소비자연대 발표 제품
헬로키티	KTB-LA12S	KTB-MA06P
폴프랑크	Y12B04	Y12B35

- ☐ 기술표준원의 안전성조사는 시중에서 유통되는 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 표본 추출하여 조사하고 있음

- 따라서,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제품 중에는 「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」의 부속서에서 정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있을 수 있음

※ 관련 문의

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조사과 장금영 과장(02-509-7250)